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치유 텍스트적 접근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손시은(원광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장애극복 서사의 의미지향 |
| 2. 노처녀의 감정 흐름과 독자의 정서적 공감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방각본 『삼설기』(1848)에 수록된 「노처녀가」를 텍스트로 하여 시적 화자인 노처녀와 독자 간의 감정적 유대를 통해 문학치유 텍스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면에 드러나 있는 편집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¹⁾ 삼설기본 「노처녀가」²⁾는 19세기 무렵 가사의 서사적 경향이

* 이 논문은 제62회 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2017. 8. 24.)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1) 작품의 앞부분에 “넷적의 혼 녀지 이시되 일신이 가진 병신이라 (중략) 이쳐로 방황하더니 문득 노리를 지어 화장하니 곁와시되”라는 서사가, 뒷부분에 “이 말이 그장 우습고

강해지면서 독서물로 향유된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작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노처녀가」 이본은 판본과 필사본을 포함해 10여 종에 이르는데, 그 중 1848년 11월 간행된 작품집 『삼설기』에 수록된 「노처녀가」가 가장 선행본이다.³⁾ 『삼설기』가 조선후기 민간에서 상업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출판된 방각본이라는 점, 이본들 간에 부분적 착간 외에는 동일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처녀가」가 상당히 대중적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음은 분명하다.

조선조의 노처녀 문제는 국가 차원의 구제정책이 시행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⁴⁾ 이는 조선조의 ‘노처녀 노총각 담론’이 어떤 개인의 주관적 관심이나 특정 계층의 이슈에 머물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조선 사회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원활한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단위의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였다. 개가 금지, 칠거지악, 삼종지도, 내외법 같은 각종 여성 규제를 만들어 가족으로부터 여성의 이탈을 방지하였으며, 추후 소속될 가족이 없게 될 노처녀의 운신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를 처벌하기까지 했다.

혼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시되었다.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화폐 경제가 가속화되던 조선후기에도 국가 경제의 근간은 여전히 농업생산력에 있었다. 높은 영아사망률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상태에

희한히기로 기록호노라”라는 결사가 붙어 있다.

- 2) 이하 편의상 판본을 생략하고 「노처녀가」로 칭하기로 한다. 본고의 텍스트는 羅孫齋에서 엮은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에 수록된 『三說記』(1848) 판본을 원본으로 한다.
- 3) 「노처녀가」 이본 현황에 대해서는 성무경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170-172면)
- 4) 『경국대전』에는 “사족의 딸로서 나이 30이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간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資財를 지급하고 그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라는 규정이 있다. (『經國大典』 「禮典」 惠恤) 또한,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고을 안의 남자 25세, 여자 20세 이상 된 자를 골라서 부모와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하여 성혼하도록 하되 태만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여 노처녀 문제 해결을 목민관의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무경, 앞의 논문, 161-162면에서 재인용)

있던 당시 사회에서 혼인은 새로운 노동력의 충원을 위한 출산의 전제로서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다.⁵⁾ 사람들은 하늘이 부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감을 표출하지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면 음양의 조화가 깨져 가뭄을 일으킨다고 여겼다. 가뭄은 농업국가 조선에서 가장 두려워한 천재지변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치 사회적 담론은 물론 현실 경제적 차원에서도 노처녀 노총각 문제는 조선 사회 전체의 관심사였다.

이런 배경에서 정조 연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총각 김희집과 노처녀 신씨의 賜婚 사건(1791)⁶⁾은 문학 분야에서도 주목되었다. 이덕무(1741-1793)는 정조의 명을 받들어 이들의 기이한 혼사 내막을 「金申夫婦傳」으로 기록하였고, 이옥(1760-1815)은 「東廂記」라는 한문 희곡으로 문학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이본을 파생시킨 인기작품인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 역시 김신 부부의 사혼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문학적 형상화로서 한문으로 쓰인 산문, 희곡은 물론 국문 가사와 독서물로서의 서사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전제론 가사의 서사화 또는 소설화에 주목하거나 노처녀라는 인물의 특성을 정감과 문체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는 데 주목해 왔다.⁷⁾ 최근의 연구 중 흥미로운

5) 박경환,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156-157면.

6) 오부(五部)에서 혼사를 시켜야 할 남녀의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모두 2백 81인이었다. 유학(幼學) 신덕빈(申德彬)의 딸이 유학 김희집(金喜集)과 혼사 말이 오가니 특별히 호조 판서 조정진(趙鼎鎭)과 선혜청 제조 이병모(李秉模)에게 혼인 차비를 갖추고 잔치를 열어 혼례를 이뤄 줄 것을 명하고, 내각에 소속된 관리 중 글을 잘 짓는 사람에게 전(傳)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도록 명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46집 224면, 정조15년(1791) 6월 2일(을사) 기록)

7)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잡가본 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전영민, 「〈노처녀가〉의 장러전 변환과 〈꼭독각시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것은 신희경과 정환국의 연구이다. 신희경은 「노처녀가」가 상업성을 가진 『삼설기』에 전제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후기 대표적인 통속소설인 영웅소설의 구성방식을 취해 대중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보았다.⁸⁾ 독자 중심의 향유환경과 이야기의 통속적 서사구조를 대중성이라는 개념으로 긍정한 셈이다. 이에 반해 정환국은 ‘불편한’ 신체 조건에 상반되는 「노처녀가」의 ‘의아한’ 해피엔딩을 노처녀의 일방적 합리화로 간주함으로써 「노처녀가」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내놓았다.⁹⁾

다수 판본이 현존한다는 점과 『삼설기』 방각본에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¹⁰⁾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노처녀가」는 대중적 인기를 얻어 흥행에 성공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대중적 기반을 고려할 때 노처녀의 장애조건을 서사적 맥락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독자대중의 관심을 이끈 재미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사적 인과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인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노처녀가」의 담당층이 노처녀가 보여주는 주체적 삶의 인식과 적극적인 현실인식에 상당 부분 정서적 공감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적화자인 노처녀가 드러내는 다양한 감정의 편폭과 양상이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의미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당대의 그 대중적 향유 기반을 전제로 볼 때, 「노처녀가」의 작품서사가 공감이라는 치유의 메커니즘을 통해 다수 독자의 보편적 정서와 공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예정담론’의 실현양상-〈삼설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4집, 2012.

8)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9)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10) 방각본은 수요자인 독서대중의 요구에 맞춰 영리 목적으로 민간에서 간행된 책이다.

2. 노처녀의 감정 흐름과 독자의 정서적 공감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줄거리는 갖가지 신체적 결함을 가진 나이 오십 줄의 노처녀가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 남성과 혼인한 후 기적적으로 장애가 사라지고 쌍둥이까지 낳아 행복한 부부생활을 누린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인이라는 삶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신체장애 여성의 욕망실현 서사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는 일상의 다양한 국면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좌절을 경험케 하면서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리는 불리한 생애 조건이다. 노처녀가의 신체장애 역시 혼인이라는 대사 앞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신체상 특징으로 보자면 노처녀의 얼굴은 곰보이고, 눈은 애꾸에다, 귀가 먹고, 왼손과 왼다리는 불구이며, 피부색까지 검은 곱추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적 장애 판정 기준으로 보면 복합 증증 장애를 지닌 여성인데다 현대사회의 미적인 기준에서는 추녀라 하겠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는커녕 혼인의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을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신체장애적 조건은 「노처녀가」의 첫 구절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된다.

넷적의 혼 녀지 이시되 일신이 가진 병신이라
 나히 사십이 넘도록 출가치 못하여 그저 처여로 이시니
 옥빈홍안이 스스로 늙어가고 설부화용이 공연이 업서시니
셔름이 골슈의 밋치고 분흠이 심중의 가득하여¹¹⁾
밋친 듯 취호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니더니 일일은 가만이 탄식왈
 하날이 음양을 니시미 다각기 정호미 잇거늘 나는 엇지하여 이러호고
췌기도 층양 업고 분호기도 그지 업니
 이처로 방황호더니 문득 노리를 지어 화창호니 곶와시되

11) 주인공 노처녀의 감정 상태 및 변화에 주목하고자 해당 부분을 굵게 강조하고, 감정에 방점 표기하였다. 이하 같음.

이 서두 부분은 「노처녀가」 주인공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첫째, 노처녀의 신체 조건에 대한 정보이다. 서술자는 노처녀를 일러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장애에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나이와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로, 주인공 여자가 나이 사십을 넘긴 노처녀임이 드러난다. 셋째, 노처녀의 심리적·감정적 상태에 대한 정보이다.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노처녀의 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노처녀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늙어감에 따라 ‘서러움’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한 상태이다. 또한, 그러한 감정의 과잉으로 인해 미친 사람마냥 혹은 술에 취한 사람마냥 ‘불안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속담에도 “노처녀가 있으면 바가지가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니와 혼인을 못한 노처녀의 욕구불만은 대개 신경질적으로 발작하여 폭력적 언사나 행위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바자지를 깨는 것처럼 말이다. 固所願이나 不敢請이라고, 감히 시집보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신경질적 행위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¹²⁾ 요즘말로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이를 수 있다.

한편, 노처녀의 ‘서러움’과 ‘분함’의 감정은 서술자의 목소리 외에 “섭기도 층양 업고 분하기도 그저 업니”의 자기토로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노처녀의 원통하고 억울한 심사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노처녀의 감정은 자기 처지에 대한 내적 한탄보다는 외부로 향한 원망심과 분노의 표출이라는 외향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사십이 넘도록 그저 처녀로 늙어가고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해 세상 탓을 하는 것이다.

노처녀는 ‘하늘이 음양을 뉘에 다 각기 정함이 있다’는 이치를 명제로, 그 자연스러운 이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온갖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혼인이 가능한 정상적인 인물로 여기는 일방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노처녀는 혼사 장애의

12)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158면.

원인이 자신의 신체 조건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십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부당하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처녀 인물에 대해 「노처녀가」의 독자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두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술자는 갖은 병신인 탓에 40이 넘도록 혼인하지 못한 노처녀의 노화과정을 “옥빈홍안이 스스로 늙어가고 설부화용이 공연히 없어진다”고 묘사하고 있다. 갖은 병신과 옥빈홍안·설부화용은 의미상 병치될 수 없는 모순된 표현으로, 여기에는 노처녀를 卑小化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자는 노처녀를 해학적 인물로 바라보고 대상화한다. 즉, 노처녀는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비소성을 띤다. 다음은 노처녀의 본격적인 사설이 시작되는 첫 대목이다.

어와 니 몸이여 **젊고도 분흔지고** 이 셔름을 어이허리
 인간만스 셔름 중의 이니 셔름 갖흘손가
 셔름 말 흐즈 하니 붓그럽기 층양 업고
 분흔 말을 흐즈 하니 가슴 답답 기 뉘 알니
 남 모로논 이런 셔름 던지간의 또 잇는가
 밥이 업셔 설위할가 옷시 업셔 설위할가 이 셔름을 어이 풀니
부모님도 야속하고 친척들도 무정하다
 니 분시 들지꼈노 쓸 디 업다 흐려니와
 니 나흘 헤여보니 오십줄의 드러고나
 먼저 눈 우리형님 십구세의 시집가고
 셋지의 아오년은 이십의 셔방 마즈 티평으로 지닌디
 불상흔 이니 몸은 엇지 그리 이러히고
 어니덧 늙어지고 츠릉군이 되거고나
 시집이 엇더흔지 셔방맛시 엇더흔지
 생각흐면 싱송상송 쓴지단지 니 물니라

노처녀의 감정 상태는 여전히 ‘서러움’과 ‘분함’으로 나타난다. “밥이 없어 서러워할까 옷이 없어 서러워할까”에서 알 수 있듯이 노처녀의 집안은 끼니와

추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따라서 혼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궁핍은 시집을 못 간 원인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여기가 노처녀의 신체장애에 대해 가족과 노처녀 간에 뚜렷한 시각차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노처녀는 초지일관 자신의 신체적 결함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데 반해, 노처녀의 가족 친척들 모두가 노처녀를 혼인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혼인을 시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상호 간극은 노처녀의 부정적 심리를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킨다는 속담처럼 ‘전치(displacement)’의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드러내놓고 비난할 수 없는 부모와 친척 대신 만만한 아우와 중매어미를 향해 적대감을 표출한다. 노처녀는 다음 차례가 당연히 자기려니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지만 아우가 먼저 시집을 가버린다. 언니인 자신의 차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의혼의 주체는 양가 부모일 터이니, 중매어미와 아우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대심리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노처녀는 용심이 나고 화증이 폭발해 시집가는 아우를 시기하고, 혼인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선 중매어미를 원수로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¹³⁾

그런데 노처녀는 둘째인 자신을 시집보내지 않고 스무 살 아우를 시집보낸 야속한 부모와 자신의 혼사에 무관심한 친척들을 향해 서럽고 분한 마음을 갖지만 서러운 심사를 고백하지도, 분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외부로 향해 거침없이 표출하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외향성을 띠던 노처녀의 감정이 내적으로 응축되면서 외부로 향한 원망심과 분노는 ‘내 본래 둘째딸로 쓸데없다’는 자기비하와 ‘불쌍한 이내 몸’ 같은 자기연민으로 바뀐다.

13) 형님도 저러하니 나도 아니 저러하라 츠레로 훌족시면 니 아니 돌지런가 형님을 치위시니 나도 저러 훌거시라 이쳐로 정흔 마음 막음더로 아니 되어 괴약흔 아오년이 면전 출가흐단 딸가 씌결의나 싱각흐며 의심이나 이실손가 도리씩이 안팎 엮고 후싱목이 옷독흐다 원수로운 중미어미 날은 아니 치위쥬고 사쥬단즈 의양단즈 오락가락흐을 적의 니 비록 미련흐나 눈치쫓츠 업슬손가 용심이 절노 나고 화증이 폭발흐다

이러한 노처녀의 감정 변화로 인해 독자는 더 이상 노처녀를 주제파악을 못하고 상황 판단력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 노처녀가 부모와 친척 앞에서 보이는 감정 조절은 인륜도덕을 아는 분별력을 지녔음을 방증해 주기 때문이다.¹⁴⁾ 이제 독자는 서두에서 서술자가 형상화한 비소한 노처녀 인물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을 거두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처녀의 자기서사를 쫓는다. 이제 더 이상 노처녀는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모자라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다.

너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갖치 못홀소나
 너 얼굴 엷다 마쇼 엷은 궁계 슬기 들고
 너 얼굴 검다 마쇼 분칠하면 아니 훔가
 흐 편 눈이 머러시나 흐 편 눈은 밝아 잇네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불을 못바드며
 귀먹다 느무러나 크게하면 아라듯고 텃동소리 능히 듯네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 혀여 무엇홀고
 왼편 다리 병신이나 뒤간출납 능히 호고
 코구멍이 뚱뚱하나 니음시는 일슈 만네
 넘시울이 푸르기는 연지빗홀 발나 보시
 엉덩뼈가 너르기는 희산 잘 홀 징본이오
 가슴이 뒤앗기는 즈 일 잘 홀 괴골일시
 턱 아리 거문 혹은 츠어 보면 귀격이오
 목이 비록 움쳐시나 만져 보면 엷슬손가
 너 얼굴 불작시면 곱든 비록 아니흐나
 일등 슈모 불너다가 험거롭게 단장하면
 남디되 맛는 셔방 닌들 혈마 못 마즐가

혼인을 향한 노처녀의 간절한 욕망은 지속된다. 혼인은 사회 질서로의 편입이

14) 「노처녀가」 후반 부분에서 신세를 비판해 자살을 생각하는 대목에서도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난처한 심경을 드러냄으로써 노처녀가 인륜에 입각한 사고판단을 하는 인물임이 확인할 수 있다.

며 가부장적 질서에의 진입이므로 행실, 재주 등은 질서 편입의 조건이며, 이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윤리 규범에 충실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¹⁵⁾ 이제 노처녀는 외모 묘사, 시속행실 자랑, 재주와 솜씨 자랑 등 혼인 성사를 위한 자신의 '정상성'을 끊임없이 항변한다.

노처녀는 외모에 대한 묘사에서 “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소냐”라는 당당한 발언으로 남들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다. 여기에서 독자는 노처녀가 자신이 병신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노처녀는 장애를 지닌 신체와 추한 외모라는 현실의 결핍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히는 인식을 보여준다. 예컨대 곰보 얼굴은 얼짱 각도로, 검은 피부는 화장으로 결점을 보완하겠다고 한다. 눈은 한 편이 바늘귀를 꿰 만큼 밝고, 귀는 먹었으나 큰소리 듣는 데는 지장이 없고, 콧구멍이 막혔어도 냄새는 잘 맡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넓은 엉덩이는 애 잘 낳을 모양새요, 뒤로 젖혀진 가슴은 힘든 일 잘할 골격이며, 턱 아래 매달린 검은 혹은 귀인의 품모를 연상시킨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록 고운 얼굴은 아니지만 일등 수모를 불러서 멋지게 단장하면 남들처럼 자신도 혼인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눈, 귀, 코 등 신체기관의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고 곰보, 혹 등 외모가 추하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말했던 것처럼 ‘갓은 병신’이어서 혼인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반문하듯이 노처녀는 최소한의 일상적 생활이 가능한가 여부를 혼인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속행실을 자랑하는 대목에서도 “내 본시 총명키로 무슨 노릇 못할소냐”라는 자신감 넘치는 서술로 시작하여 자기자랑을 늘어놓는다.

얼굴 모양 그만두고 시속행실 으뜸이니
 너 본시 총명키로 무슨 노릇 못할소냐

15)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08면.

기억즈 나나즈를 십 년 만의 씨쳐니니
 효헝늑 열여전을 무슈이 숙독헝늑
 모를 헝실 바이 업고 구고봉양 못홀손가
 중인이 모헝 곳의 방귀 뛰여 본 일 업고
 밥주걱 업허노와 니를 죽여 본 일 업니
 장독 소리 벗겨니여 뒤물그릇 헝 일 업고
 양치디를 집어니여 축목헝여 본 일 업니
 이니 헝실 이만헝면 어디 가서 못솔손가

자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글언문을 십 년 만에 깨우쳤으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방귀를 똥 적도, 밥주걱으로 이를 눌러 죽인 적도, 장독뚜껑으로 똥물그물을 한 적도 없다는 등 남보다 뛰어난 행실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하고 실행해야 하는 기본 행실들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에게 강요해온 부덕의 행실보다 오히려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 재주와 음식 솜씨에 대한 자랑¹⁶⁾ 역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재주를 과시하면서도 그런 재주를 지닌 자신이 혼인하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한다.¹⁷⁾

그러나 노처녀 자신의 조건 인식과 현실의 객관적 상황 간에는 큰 격차가

16) 헝실즈랑 이만헝고 지조즈랑 드러보소 도포 짓는 슈품 알고 훗웃시며 핫웃시며 누비상침 모를손가 세폭부치 훗니불을 삼일 만의 맛쳐니고 헝즈치마 지어널 제 다시 곳쳐 본 일 업니 함박죽박 씨아지면 술뿌리로 기워니고 보선 본을 못 어드면 닛뽀즈로 제일이오 보즈를 지을 제는 안만 노코 말나니니 슬기가 이만헝고 지조가 이만헝면 음식숙설 못홀손가 슈슈전병 부칠 제는 외쪽지를 닛지 말며 상치삼을 먹을 제는 고초장이 제일이오 청국장을 담을 제는 묵은 콩이 맛시 업니 청더콩을 삼지 말고 모닥불의 구어 먹쇼 음식묘리 이만 알면 봉제스를 못홀손가 니 얼골 이만헝고 니 헝실 이만헝면 무슨 일의 막홀손가 남이라 별 슈 있고 인물인들 별홀손가

17) 이처럼 청자를 중점에 두고 있는 「노처녀가」의 담화방식은 선언적 언어로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텍스트가 향유되었던 여행시정 공간의 유머와 재치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다. 이는 당시 도시대중미학의 통속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양상」, 『국제어문』 54, 국제어문학회, 2012, 257면.)

존재한다. 남들 다 맞는 서방이 없이 홀로 늙어가는 노처녀의 감정은 다시 서러움의 정조가 지배적이 된다.

남디되 맞는 서방 니 홀노 못 마즈니 **엇지 아니 셔를손가**
 서방만 어더시면 뒤거두기 잘못홀가
 니 모양 블작시면 어른인지 〽히런지
 바름 마즌 병인인지 광긔인지 취긔인지
여렵기도 그지 업고 붓그럽기 층양 업니
어와 셔룬지고 니 셔름 어이홀고
 두 귀 뒷히 흰 털 나고 니마 우히 살 잡히니
 운변화안이 어니 덧 어디 가고 속절 업시 되거고나
 긴 한숨의 즈른 한숨 먹는 것도 귀치 안코 넘는 것도 조치 안타
 어른인 체 흐자 흐니 머리 싹흔 어른 업고
 너인이라 흐자 흐니 귀 뒷머리 그저 잇니

현실적 조건과 대비해 자아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내면의 갈등은 고조되기 마련이다. 이른바 욕구 불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시집가고 싶은 노처녀의 간절한 욕망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가족과 친척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채 심리적 결핍과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킨다. 노처녀는 어른인지 아이인지, 병인인지 광객인지 취객인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의 감정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서러움'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흰머리가 나고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는 등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만하면 ~ 못 하겠는가' 했던 긍정적 인식은 자괴감으로 추락하여 노처녀의 내적 갈등을 더욱 격렬하게 표면화시킨다.¹⁸⁾ 결국 노처녀는 “용심이 절로 나고 화증이 복발”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충동까지 일으킨다.

18) 최혜진, 「외모지상주의의 문학적 극복과 치료적 대안-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인문학적 해결방안-」,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411면.

이 신체를 어이홀고 살고 시분 뜻이 업니

간슈 먹고 죽즈흔들 목이 쓰려 엇지 먹고
 비상 먹고 죽즈흔들 니음시를 엇지 홀고
 부모유체 난쳐흐다 이런 싱각 저런 싱각
 뵤 방 중의 혼즈 안즈 온가지로 싱각흐나
 넙맛만 업셔지고 인물만 초골흐다

노처녀는 이제 ‘살고 싶은 뜻이 없다’고 외치며, 자살의 방법을 궁리한다. 그런데 간수는 목이 쓰려 못 먹겠고, 비상은 냄새가 독해 못 먹겠다고 핑계를 댈다. “효행록 열녀전을 무수히 숙독”한 여성으로서 부모께 불효를 저지룰 수 없다는 이유도 내건다. 이러한 핑계들은 결국 자살이 노처녀의 급격한 심리 변화가 가져온 일시적 생각이었을 뿐임을 보여준다. 자살에 대한 노처녀의 생각은 「노처녀가」 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언제나 단호한 결행이 아닌 관념적 사유에 머문다. 이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감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는 언어적 수사로서 죽음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처녀의 자살 언급은 독자로 하여금 노처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심정에 공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독자의 마음과 노처녀의 마음이 공감되는 순간, 노처녀는 갖은 장애 때문에 혼인 못한 우스꽝스러운 ‘대상’에서 「노처녀가」라는 인기독서물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제 독자는 주인공 노처녀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응원군이 되어 여성주체 노처녀가 혼인이라는 욕망 충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가 「노처녀가」의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3. 장애 극복서사의 의미지향

이제 독자는 노처녀가 벌이는 사건들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노처녀가」 서두에서 서술된바, 서술자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노처녀 인물 제시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독서의 재미의 발견한다. 「노처녀가」의 내용은 이렇게 인물 중심의 이야기와 사건 중심의 이야기의 2단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형상화된 노처녀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런데 작품의 중반부에 이르면 주인공 노처녀의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장애를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상형 남성과 혼인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루어내는 노처녀의 장애극복 서사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체로 생각하면 니가 결단 못홀손가

부모동성 밋다가는 셔방마시 망연하다
 오날 밤이 어셔 가고 니일 아츰 도라오면
 중미과를 불너다가 괴운 조각으로
 표츠로이 구흔하면 엇지 아니 못될손가

이켜로 생각하니 업던 우음 철노 논다

음식 먹고 체흔 병의 정괴산을 먹은 다시
 급히 알는 꺾난병의 청심환을 먹은 다시
 활씩 니러 안즈면서 돌통터를 닦의 물고 쓰덕이며 궁니하되

니 셔방을 니 갈회지 남다려 부탁홀가

니 엇지 미련하여 이 의스를 못 니던고
 만일 발셔 찌쳐더면 이 모양이 되어실가
 청각 먹고 생각하니 아조 쉬운 일이로다
 저근 념치 도라보면 어니 년의 출가홀가

노처녀는 혼인을 시켜주지 않는 가족과 친지 등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욕망의 불충족에서 기인한 심리적 좌절감에 답답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려 한다. 「노처녀가」의 장애극복 서사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노처녀는 “부모 동생 밋다가” 평생을 혼자 늙어죽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사를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서방 맛이 망연하다”는 저속한 표현까지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의지의 확고함을 강조한다.

노처녀는 이제 “내가 결단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통쾌한 심정으로 내일 아침을 기다린다. 용심이 일어나고 화증이 폭발해 잠조차 이루지 못했던 때와 달리 “음식 먹고 체한 병에 정기산을 먹은 듯”, “급히 앓는 꺾난병에 청심환을 먹은 듯” 막혔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어졌다고 서술한다. 아침이 돌아오면 직접 중매패를 불러 혼인을 성사시켜야겠다고 결심하니 벌써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것처럼 만족감이 밀려와 “없던 웃음 절로 난다”. 득의양양한 태도로 담뱃대를 입에 물고 만면에 자족의 미소를 지으며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노처녀의 모습은 독자에게도 웃음을 유발하는데, 독자의 이 웃음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다.

자신의 남편을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고르겠다는 노처녀의 선언에는 중매혼의 사회적 통념을 ‘적은 염치’로 치부하고, 당사자에 의한 주도적 혼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인식이 바탕하고 있다. 부모만 믿고 하염없이 혼인 성사를 기다리다 쌓이고 쌓인 울분에 가슴을 두드리던 수동적 여성상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주체적 여성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고름 밋고 너기흐며 손바닥의 춤을 밧하
 밧세흐고 니른 말이 니 팔즈의 타인셔방
엇던 사름 목세 짚고 쇠침이나 흐여 보세
 알고지고 알고지고 어셔 밧비 알고지고
 니 셔방이 뉘가 되며 니 낭군이 뉘가 될고
 텃정비필 이셔시면 제라셔 마다흔들
 니 고집 니 억지로 우김성의 아니들가
 쇼문의도 드러시니 니 눈의 아니들가
 쥬 건너 김도령이 날과 셔로 년갑이오
 뒤골목의 권슈즈는 니 나브단 더흐지라
 인물 조코 줄기츠니 슈망의는 김도령이오 부망의는 권슈지라
 각각 성명 썬 가지고 쇠침통을 흔들면서 손고초와 비는 말이

모년모월 모일야의 사십 너문 노쳐녀는 업디여 못줍느니
 광박선싱 니순풍과 소강절 원천강은
 신지영 호오시니 감이순통 호읍소서
 후취의 춤녀홀가 삼취의 춤여홀가
 김도령이 비필 될가 권슈즈가 비필 될가
 니일노 되게호여 신통호를 뵈읍소서
 흔들흔들 놓히 드러 쇼침 하나 썩혀니니
 슈망치던 김도령이 첫 가락의 나단 말가
열시고 조홀시고 이이 아니 무던하나
 평생소원 일위고나 올타올타 니 이제는 큰소리를 호여 보자
 형님 불워 쓸 더 업고 아오년 겨만 거시 나를 어이 송을 보랴
 큰지침 절노 나고 엇게춤이 절노 난다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노쳐녀가 처음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자신의 배필이 누가 될지 알아보는 쇠침점이다. 노쳐녀의 배필감으로 물망에 오른 남성 후보는 첫째가 김도령이요, 둘째가 권수재인데, 점괘 결과 김도령이 점지되었다. 한낱 점괘일 뿐이지만 노쳐녀는 “평생소원 이룬” 것처럼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다가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겨우 진정시키고 잠에 빠져드는데, 꿈속에서 김도령과 혼례가 이루어진다.¹⁹⁾

그러나 김도령과의 혼례의식을 치르며 기쁨에 겨운 그 순간, 문득 “개소리에

19) 평생의 미친 인연 오날 밤 춘몽 중의 혼인이 되거고나 압뜰의 츠일 치고 뒤뜰의 숙슈 안고 화문방석 만화방석 안팍 업시 포설호고 일가권속 갖득 모혀 가화 쏘즌 다담상이 이리저리 오락가락 형님이며 아즈미며 아오년 족하불이 긴 단장 지른 단장 거룩하게 모혀시니 일기는 화창호고 향니는 축비홀다 문전이 요란하며 신낭을 마즈들 제 위외도 거룩홀다 츠일 미히 전안호고 초례호려 드러올 제 니 몸홀 구버보니 어이 그리 잘났던고 큰머리 썩는잠의 준쥬투심 갖초 츠고 귀의고리 룡잠이며 속속드리 비단옷과 진홍디단 치마 넓고 웃고름의 노리기를 엇지 이로 다 니르랴 룡문디단 할웃 넓고 흥선을 손의 쥐고 수모와 중턱어미 좌우의 옹위호여 신낭을 마즐 적의 엇지 이리 거룩호고 초례교비 마즌 후의 동녀연 합환주로 빅연귀약 더욱 조타 감은 눈을 잠깐 뜨고 신낭을 살펴보니 슈망치던 김도령이 날과 과연 비필일다 니 점이 영검호여 이쳐로 만나는가 하늘이 유의호여 니게로 보니신가

놀라 깨니 침상일몽”에 불과하다. 꿈을 억압된 무의식의 반영이자 강렬한 욕망의 표상으로 해석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김도령과의 몽중 혼인은 노처녀의 욕망이 꿈이라는 기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욕망과 대척되는 객관적 현실의 무게가 클수록 개인의 욕망 실현은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추구되기 마련이다.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는 욕망의 대리충족이자 갈등의 소극적 해결 방안이다. 노처녀의 장애극복 서사에서 극복의 단초는 생각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꿈이라는 모티프를 통한 갈등 해소는 노처녀가 장애를 극복해 가는 자기서사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장애극복 서사의 출현을 예고하는 복선의 기능을 한다.

얏가올샤 이니 꿈을 엇지 다시 어더보리

그 꿈을 상시 삼고 그 모양 상시 삼아 혼인이 되려무나

밋친 증이 대발호여 벌써 니러 안즈면서

넘은 치마 다시 찾고 신은 보선 또 츠즈며

방춧돌을 엽히 끼고 짓는 기를 쓰릴 다시

와당통탕 넓들 적의 엽더지락 곱더지락

바람벽의 니마 밧고 문지방의 코를 쓰며

면경석경 성적함을 늦춧치 다 쓰치고

한숨지며 호는 말이 **얏잡고 얏가올샤 이니 꿈 얏가올샤**

노처녀가 개소리에 놀라 깨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개 짓는 소리로 인해 몽중 혼인마저 “인연을 못 이루고” 끝나버렸다. 아쉬움과 허탈감이 정서의 급격한 변화—밋친증이 대발—를 초래하지만, 이 역시 “입은 치마 다시 찾고 신은 버선 또 찾으며” 방춧돌을 들어 짓는 개를 때리려다 이리저리 엮어지고 자빠져 문지방에 코를 부딪치고 성적함을 깨뜨리는 등 해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노처녀는 희화화된 캐릭터로서, 서사를 이끄는 사건 또는 상황의 주체가

다. 회화화는 대상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컨대 「우부가」의 개똥이·꿈생원·핑생원, 「용부가」의 피똥어미 같은 인물의 회화화는 연민과 동정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나타난 노처녀의 해학적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오죽하면...’ 하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유발한다.

여기에서 독자들 마음에 따뜻한 연민의 감정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노처녀의 장애극복서사에서 찾을 수 있다. 노처녀의 내면적 정서 표현에 중점을 두는 앞부분의 서술과 달리, 생각의 전환 이후 독자는 노처녀의 욕망이 과연 실현될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노처녀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세계에 맞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영웅은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이다. 정복과 퇴적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힘의 행위와 더불어 고난의 극복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노처녀가」는 구체화된 자아와 욕망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이의 해소를 보여주는 서사구조에 있어 영웅소설과 유사함을 보인다.²⁰⁾ 이것이 「노처녀가」의 장애극복서사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원리이다.

눈의 암암 귀의 징징 그 모양 그 거동을 엿지 다시 혀여 보리
남이 알가 붓그리나 안 슬픈 일 혀여 보자
 흥독기의 즈를 밉여 갓 썩오고 옷 낚히니
 사름 모양 거의 갓다 쓰다듬아 세워 노코
 시 저고리 긴 치마를 코괴 잇게 찢쳐 낚고
 머리 우회 팔을 드러 제법으로 절을 하니
 눈물이 종횡혀여 님은 치마 다 적시고
 한숨이 북발혀여 곡성이 날 듯하다
뉘음을 강녕혀여 가마니 혀여보니 가련하고 불상하다

20) 신희경, 앞의 논문, 306-307면.

꿈속에서 본 김도령의 멋진 모습이 노처녀의 눈에 암암하다. 못다 한 혼례를 마무리하고자 흥두께에 의관을 갖추고 사람 모양으로 세워놓은 후, 자신은 새 옷을 펼쳐입고 흥두께에 절을 한다. 마치 미혼으로 죽은 망자들의 해원을 위해 행하는 영혼결혼식을 연상시키는 이 모의 혼례는 노처녀의 몽중 혼인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방편이다. 이처럼 몽중 혼인은 표면적으로 실패(좌절)한 장애극복서사로 보이지만, 장애극복을 위한 또 다른 시도(도전)를 배태한다. 위에 인용한 흥두께 모의혼례 대목은 비록 구차해 보일망정 노처녀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개선서사로 작용한다. 이 서사는 물론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흥미로운 해프닝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노처녀가 보여준 감정은 '눈물'과 '한숨'과 '곡성'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이므로, 노처녀의 고뇌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상황은 변모하고 실제 혼례를 치르게 됨으로써 앞선 부분들에서 제기된 갈등과 문제들은 모두 해소되고 해결된다.²¹⁾

이런 모양 이 거동을 신영은 알 써시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성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 마디의 되느고나
 혼인턱일 갖가오니 **영덩춤이 절노 논다**
 줌어귀를 불근 쥐고 종종거름 보살피며
 삼살기 귀의 디고 넌즈시 니른 말이 나도 이제 시집간다
 네가 니 썸 찌던 날의 원슈갓치 보와더니
 오늘날이야 너를 보니 니별 홀 날 머지 안코 밥 줄 사름 나 썸이라

노처녀의 흥두께 모의 혼례를 목격한 가족들은 김도령과 의혼하고, 마침내 혼사가 성사된다. 노처녀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혼인을 앞둔 노처녀의 기쁨이 영덩이춤과 삼살개에게 컷속말하기로 표현되고 있다. 삼살개

21)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415-416면.

의 귀에 대고 이르는 말 가운데 의미있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밥 줄 사람 나뿐이라”이다. 노처녀가 삼살개의 밥 주기를 전담했다는 것은 나이 오십이 되도록 독수공방 외로운 신세였던 노처녀에게 유일한 벗이 바로 삼살개였음을 의미한다. 요즘말로 반려견이었던 셈이다. 그런 삼살개를 향해 귓속말을 하는 노처녀의 마음은 시원섭섭함을 토로한다.

이쳐로 말흔 후의 혼일이 다다르니
 신부의 칠보단장 꿈과 갖치 거룩하고
 신랑의 사모풍뎨 더고나 보기 좇타
 전안차례 맞춘 후의 방치년 더욱 조의
 신랑의 동탕흡과 신보의 아남흐미 츠등이 엮셔 시니
 텃정흐 비필인 줄 오날이야 알커고나
 이러트시 쉬온 일을 엇지 흐여 지원턴고
 신방의 금침 띄고 부뷔 셔로 동침흐니
 원앙은 녹슈의 놀고 비취는 연니지의 길드림 갖흐니
평생소원 다 풀니고 온갖 시름 바히 업니
 이 전의 잇던 스옵 이제록 싱각흐니
 도로혀 춘몽 갖고 니가 혈마 그러흐랴 이제는 기탄 업다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아니 희한흐가
 혼인흐 지 십삭 만의 옥동즈를 순산흐니
 쌍티를 어이 알니 **즐겁기 총양 업니**
 기개이 영준이오 문지가 비상흐다
 부부의 금슬 조코 즈손이 만당흐며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이음츄니 이 아니 무던흐가

드디어 노처녀가 그토록 소망하던 혼인이 진행된다. 배필은 노처녀가 첫 번째 이상형으로 손꼽았던 김도령이다. 평생소원이 이루어지니 그동안의 온갖 시름도 사라지고, 차례를 어기고 먼저 시집간 아우에게 품었던 샘이 붉은 녹뚝 사라졌다. 그런데 심리적·감정적 치유는 물론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게 되었다고 하여 신체적 치유도 나타난다. 게다가 순산한 쌍둥이는 재주가 빼어나

고, 부부간에 금슬도 좋다. 한 마디로 「노처녀가」결말은 해피엔딩이다.²²⁾

노처녀는 타인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뚜렷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꿈의 문학적 기제를 활용해 몽중 혼인을 시도하였다가 흥두께 모의혼례이라는 보다 적극적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낭만적인 결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말은 주인공 노처녀의 회화화된 캐릭터, 장애와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의 비현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에서 주체적인 발상의 전환, 원하는 삶을 향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노력 등이 많은 독자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삼설기본 「노처녀가」를 대상으로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주인공 노처녀와 독자가 감정적 유대를 완성해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처녀가」의 서사과정에서 혼인을 향한 노처녀의 욕망이 진솔한 감정의 표백을 통해 독자와 정서적 공감을 형성해 내었음을 사실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학치료의 주요 메커니즘인 정서적 공감을 통해 「노처녀가」가 치유 텍스트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노처녀가」서두에서 서술자의 의도에 의해 왜곡된 노처녀는 비소성을 띠고 대상화되었다. 노처녀의 감정 상태는 혼인 자체가 부정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서러움’과 ‘분함’에서 비롯되어 외적인 원망심과 분노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정리 앞에서 노처녀의 감정은 서서히 조절되어가고, 신체장애라는 결핍 조건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의식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22) 육체적 불구를 봉건적 질곡의 상징으로 볼 때, 신체장애 문제를 상상적 허구로 극복하는 설정은 봉건적 질곡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전영민, 「〈노처녀가〉의 장르전 변환과 〈꼭독각시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6-37면.)

이러한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은 독자 역시 노처녀의 자기서사를 지켜보고 따뜻한 공감을 이루어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처녀가」는 전반부의 인물 중심 이야기와 후반부의 사건 중심 이야기로 구분되었다. 전반부의 노처녀가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형상화된 데 비해 중후반부에 이르면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이루려고 하는 극복서사가 나타났다. 이러한 「노처녀가」의 장애극복서사를 통해 우리는 노처녀를 희화화된 캐릭터를 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영웅소설과 유사한 이러한 장애극복의 서사구조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 및 해소의 관계를 보여주며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노처녀가」의 비현실적 해피엔딩은 주인공 노처녀와 독자의 정서적 공감에 이룩한 낭만적 결말이라 하겠다.

이 글은 해피엔딩 구조와 독서물로 향유된 「노처녀가」의 대중적 인기에 착안하여 문학치유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모색해 본 글이다. 다만 독자수용의 측면에서 다수 독자들을 대상으로 「노처녀가」를 읽은 후 반응을 확인하는 실증적 작업을 전제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 논문의 한계이자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임을 밝혀둔다.

▣주제어 : 섬설기본 노처녀가, 서사, 문학치유, 감정, 정서적 공감, 수용미학, 장애극복서사

〈참고문헌〉

-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43-81면.
- 김대행,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285-309면.
- 김은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39, 2017, 33-69면.
- 박경환,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 선선미, 『문학, 치유로 살아나다』, 푸른사상, 2017.
-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15, 한국시가학회, 2004, 158-186면.
-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301-337면.
- 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양상-〈삼설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4집, 국제어문학회, 2012, 245-275면.
- 이철호, 『문학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정은출판, 2015.
-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 전영민, 「〈노처녀가〉의 장르전 변환과 〈꼭꼭각시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면.
- 조은상, 『옛이야기와 문학치료』, 월인, 2015.
- 조자현,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채연숙, 『형상화된 언어, 치유적 삶』, 교육과학사, 2015.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잡기본 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401-426면.

최혜진, 「외모지상주의의 문학적 극복과 치료적 대안-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인문학적 해결방안」, 『문학치료연구』 4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25-259면.

[Abstract]

Approach on *Sanseolgi-bon* 「Nocheonyeo-ga」 as literary therapy text

-Focusing on Emotional Bondage ti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Reception Esthetics

Son, Si-eu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aspect of the emotional bond between the heroine and the reader in terms of the aesthetic acceptance of the reader.

The old woman's desire for marriage was emotional sympathy with the reader through the expression of honest emotions.

At the beginning of 「Nocheonyeoga」, the old woman distorted by the intention of the narrator was targeted. The old woman's feelings were expressed by external grudge and anger, which originated from "frustration" and "anger", but gradually controlled and showed a conscious transition to accept and affirm the deficiency condition of disability.

The reader who was influenced by these emotional changes was also able to confirm the warm sympathy by observing the old woman's self-narrative with objective gaze. As a result, 「Nocheonyeoga」 was divided into the person-oriented story in the first half and the event-oriented story in the latter half.

While the old woman in the first half was shaped as a humorous figure, In the middle and latter part, overcoming narratives appeared to overcome disability and achieve marriage. Through the narrative that overcomes disability of this 「Nocheonyeoga」, we were able to revive the old woman as an active and

independent woman

This narrative structure that is similar to heroic novels showed the conflict and resolution between self and world, which led to the empathy of the reader. Therefore, the unrealistic happy ending of the 『Nocheonyeoga』 is a romantic ending achieved by emotional sympathy of the heroine and the reader.

【key words】 : Samseolgi-bon 『Nocheonyeoga』, Literary healing, narrative, narrator, emotion, emotional sympathy, the Reception Esthetic, the narrative that overcomes disability

손시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전자우편: ahson@daum.net

이 논문은 2018년 5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5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